

프로로그 : 민족이질화 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김경웅 / 통일원, 정치학박사

민족이질화라는 문제의 인식

“국민학교의 책상머리에서부터 대학교수의 탁자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이데올로기로서 통합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통합은 국민들을 위선자로서, 기회주의자로서, 그리고 무사안일과 어리석은 자기 기만을 하도록 요구한다. 비극이라고 해야 할지, 희극이라고 해야 할지, 이같은 어릿광대극의 충성 서약은 쓸새없이 연출되고 있다. 실용성의 여부를 따진다든지, 상식이 어떻다든지, 혹은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이다. 작가나 예술가, 배우, 교수, 학자들은 마치 괴물과도 같은 이데올로기의 압박을 받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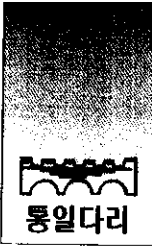
위의 글은 옛 소련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사하로프(Aldro D. Sakharov)의 책에서 옮긴 것이다. 앞뒤의 문맥을 보태 정리하면, 1970년대를 전후한 소련의 여러 정황들을 비판하면서 ‘민주·자유화’의 기본

적 대안을 제시한 내용이 주된 흐름이다. 그는 특히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을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로 한데 묶는 것에 대해 비인륜적인 ‘폭력’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는 무엇보다 인간 존엄성이 원상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하로프의 견해는 잉켈스(Alex Inkeles)의 이른바 ‘정서의 국유화’(nationalization of affect)개념으로서도 뒷받침 된다. 즉 전체주의사회에서는 특정 목적만을 위한 정서의 표현이 가능할 뿐이며, 그 목적이란 신비함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내부질서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꿔말해 국민들의 일상생활로부터 보이지 않는 정신면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완벽한 통치’를 전제로 하여 ‘표준형’만을 대량 복제해내자는 뜻과 다름이 없다.

개혁과 개방이라는 견인차를 마련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날 러시아의 입지와 비교할때, 앞에서 옮긴 글들은 낯선 느낌마저 갖게 한다. 물론 러시아의 앞날에는 아직도 견인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고, 전망 또한 일목요연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옛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나라들이 보여준 자기 변신에서, 이데올로기의 낡은 외투가 거의 퇴색하거

1) A.D.Sakharov, *My Country and the World*, (Vintage Books, New York, 1975), 김경웅 편역, 『사하로프·자유·민주화의 과제』, (서울: 홍성사, 1986), p.45.



나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는 점으로 볼 때, 사하로프의 비판은 우리에게 인간 이성의 회복력을 신뢰하게끔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분단의 땅 한반도에서는 어떠한가?

우리 민족에게 이데올로기는 그야말로 거대하고 어두운 그림자처럼 존재해 왔다. 이데올로기의 음습한 그늘 속에서 살아온 분단 세월이 어느덧 50년을 앞두고 있지만, 그 온갖 폐해를 거두어 낼 기미는 별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우기 이제는 남북사이에 이데올로기로 인한 민족이질화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점까지 와 있다. 이러한 우려속에는 기난긴 분단상태의 시간적 간극 뿐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이질적 사상체계가 동족으로서의 위화감과 이질화 현상을 촉진하였다는 복합된 배경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이라는 것이 사상 따위로 것처럼 쉽게 변질되지 않으며, 수천년 이어온 민족의 동질성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다는 논지도 있다. 따라서 민족이질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민족적 신뢰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고, 통일에도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두가지 관점은 외견상 다른듯 하면서도, 기실은 상호 대립관계에 있다기보다 보완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두 관점 모두 분단의 엄연한 현실을 조명하는 객관적 시각을 갖추고 있으며, 분단상황의 사슬을 끊어 보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 관점 모두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전제로 하여 재통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요컨대 민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남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오늘의 남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바로 양쪽의 생활양식과 내용, 곧 문화를 살펴보는 데서 출발해야 하리라고 본다. 종래대로 정치 현상에 대한 접근 위주만으로는 문제인식을 제대로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 글이 갖는 첫번째 논점이다.

■ 통일문화의 형성을 위한 시도

현재 남북은 분단 후유증으로 인해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반세기 가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벌여 온 생태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분단문화'의 소산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분단상태는 문화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통일문화'를 논의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접근을 위해 의미있는 일로 여겨진다.

통일문화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는 통일원이 주최한 「통일문화 심포지움」(1986. 10. 6-17)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여기서 통일문화는 문화의 고유개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관 개념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즉, 통일문화란 통일문제에 대한 가치성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일지향적인 가치관 및 그러한 의식과 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²⁾

이처럼 통일문화는 분단현실을 지향하고자 하는 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일 수

2) 문홍주, 「통일문화 지향과 교육계의 역할」, (서울: 통일원, 1986), pp.19~22.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이런 뜻에서 통일문화와 관련해서는 다음 내용의 문제의식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첫째로, 통일문제를 분단 현실의 틀 속에서만 한정시켜 보지 않고 민족사의 당위적인 진행방향에 비추어 봄으로써 분단생활 아래 왜곡된 민족 현실을 바로잡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이를 위하여 정치·군사적 및 냉전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일단 상대화 시켜 민족의 통합과 역사 회복, 그리고 민족문화의 창조라는 근원적인 시각에서 분단현실을 재조명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문화적, 사상적 기반의 재구성을 꾀하자는 것이다.

남북의 문화적 이질화 문제 역시 이 두 가지 논점에서 제대로 규명하고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통일문화를 통해 통일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토적 통합이나 국가기구의 통합과 같은 통일의 외형보다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민족통합의 기반이 되는 사회내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는 넓은 의미에서 통일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구상해 보는 통일의 내용과 본질에 대한 탐구이기도 한 것이다.”

러시아나 동구권 나라들, 통일독일의 경우도 일단 정치적 변혁 이후 우선적으로 사회문화 분야에서 정치·이데올로기적 오염의 치밀한 그물을 거두어 낸 바 있다. 북한 역시 비록 ‘작은 변

화’의 축적이기는 해도 1990년대에 들어서 자신과 남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점검하고, 당장 필요한 만큼은 부분적인 혁신을 시도하는 불가피한 수준을 밟고 있다고 본다.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나라 안팎에서 남북한 문화 예술분야의 교류와 제의들이 거듭되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전반적인 변화 흐름과 함께 남북간의 접촉·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때, 민족이질화 문제에 관한 우리의 부담은 훨씬 덜 수 있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점에서 1991년 12월 13일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민족문화의 앞날에 물꼬를 트는 청신호로서 기록할 만하다. 물론 본격적인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통일에까지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노정이며, 그 과정이나 통일 후의 후유증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독의 경우 통일후에 드러난 각종 후유증은 사실상 민족문화 자체의 이질화라기 보다는, 분단 장기화에 따른 생활문화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과도기적인 이질감 혹은 괴리감 때문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관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문화관련 이론과 실태를 종합 분석한 바탕위에서, 남북한 문화교류와 통일문화를 지향하여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문제들에 대비하자는 뜻을 갖고 있다. **■**

3) 윤덕희, “통일문화의 개념 정립과 형성 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11. 29, 학술회의 발표논문), pp.4~12. 윤박사는 통일문화의 개념과 내용 등에 대

해 ‘통일’의 의미를 재정립하여 구체화하고 있으며, 남북한 문화의 비교 연구를 통해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